

教會聯合을 위한 WCC의 聖經使用

이 환 봉
(本 研究所 研究員)

차 례	
서 론 1. 초기 WCC의 성경에 대한 관심 2. 성경 신학적 접근 3. 새로운 방향	4. 성경 해석학적 접근 결론(WCC의 성경 사용 결과와 비판) 참고 문헌

서 론

성경의 권위와 본질에 관한 문제는 오늘날 신학적 논쟁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거의 모든 기독교 신앙의 토론이 결국은 이 궁

극적 권위의 문제를 취급함으로 끝을 맺기 때문에 성경관은 오늘날 교회 내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그래서 바른 교훈 및 옳은 신학과, 거짓 교훈 및 그릇된 신학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시금석은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 즉 성경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의 문제이다.¹⁾

WCC내에서도 이 성경관의 문제는 그들의 심의 내용과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논제가 되어 왔으며, 30년 역사 동안 그 무엇보다 많은 논쟁을 야기시켜 왔던 문제이다. 그리고 에큐메니칼 운동은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여러 갈래로 분립되어진 것은 독선적인 교파주의에 의한 무의미한 분열이라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다. 물론 파벌적인 무의미한 교회 분열은 배격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의 신빙성을 신학 평가의 시금석으로 볼 때, 오늘날 신학과 교회의 구분은 모두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우리는 결코 성경을 떠나 그들과 함께 혼합주의적인 연합을 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처음부터 에큐메니칼 운동가들은 이 구동성으로 성경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동기가 나왔다고 주장하여 자기들의 운동이 성경적임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연구해 볼 때, 우리는 그 운동의 정체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기에서 우리는 본 논문을 통하여 WCC의 성경관을 살펴봄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우리의 복음주의적인 비판을 확정하고자 한다.

WCC의 자기들의 교회 연합 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경의 사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 방법적인 면에서, 우리는 우선 그들의 각 대

1) 간 하배, 「현대신학해설」: 개혁주의 신서, ② (한국 개혁주의 신학협회, 1974), pp. 1~2. (서문)

회 보고서와 연구 조사서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물론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각 준비 문서들에 기초하여 작성된 그 보고서들은 각 교파의 다양한 견해와 일반적 사상의 혼합체이며, 또한 각 대회 때마다 종전의 견해들이 더욱 진전되고 또한 변화되어가기 때문에 몇 가지의 보고서에만 기초하여 선불리 단언하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WCC는 그때마다 자기들의 공식적인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일련의 전통(tradition)들과 각 보고서에 분명히 드러난 신학적 결론들을 가지고 있어, 그것으로 각 회원들의 연구와 경험의 지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성경에 대한 견해를 이론적으로 파악함이 가능하다.²⁾

그러므로 우리는 본 논문을 서술함에 있어서, WCC의 성경을 교회 연합 운동의 기초로 삼기 위한 주된 노력의 진전 과정을 Montreal 회의의 기점으로 성경 신학적 접근과 해석학적 접근으로 크게 구분하여, 그들의 공식적인 원리와 각 대회의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초기 WCC의 성경에 대한 관심

1948년 Amsterdam에서 WCC 창설 이래로 성경은 WCC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초창기 WCC 창설 교회들은 최대한 성경 안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기초를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또한 그 성경을 자기들의 교회 연합 운동을 촉진시키는 과정에서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2) Arthur P. Johnston, *World Evangelism and the Word of God*(Bethany Fellowship, INC, 1974), p.255.

이때 1930년대와 1940년대 동안의 '성경적 갱신'(Biblical Renewal)은 다른 전통들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함께 소집하는 데 있어 힘있는 요인이 되어 왔으며,³⁾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 청년 운동, 특히 1939년 Amsterdam에서 열린 세계 기독교 청년 협의회(World Conference of Christian Youth)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에큐메니칼 연합의 참된 결속'이 됨을 공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⁴⁾

한동안 1948년 Amsterdam 회의에서 권위에 대한 강조가 성경의 권위보다는 하나님이 세상에 말씀하시는 한 방법이 되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주어진 적도 있었다.⁵⁾ 그리고 Oxford 회합에 앞서 열렸던 한 연구위원회(Study Committee)에서는 성경 해석을 위한 기본 원리에 대하여 서로 날카로운 분열까지 생겼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회합에서 재확인된 중요한 교리적 문제들에 관한 성경적 일치점들은 그들의 교회 연합의 결속을 오히려 크게 고무하였다. 그리고 Visser't Hooft는 그후 1949년 WCC Oxford 회합(Wadham College)에서도 신학자들은 여전히 성경의 판단에 관하여 놀랄만한 정도의 일치를 발견하는 실제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고 낙관적으로 회상하였다.⁶⁾ 그리하여 Oxford 회합에서 성경 신학자들은 많은 신앙 고백서들로부터 '성경 해석을 위한 지침 원리들'(Guiding Princip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을 채택하였는데, 그들은 그 속에서 "성경

3) '성경적 갱신'(Biblical Renewal)은 Suzanne de diétrich(1945)가 WCC의 후원으로 발간한 'Ecclesia Militans' 시리즈의 책명으로 그 후 당시의 성경에 대한 WCC의 새로운 관심과 태도를 대신하는 용어가 되었다.

4) Harold E. Fey(ed.), *The Ecumenical Advance: A History of the Ecumenical Movement* (London: SPCK, 1970), p. 6.

5) Arthur P. Johnston, *op. cit.*, p. 219.

6) *Ibid.*, p. 221.

해석을 위한 기본 원리를 수납하는 문제들에 있어 우리는 날카롭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우리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분명한 분열 아래 서로 상당한 정도의 일치 가능성이 기초될 수 있음을 믿었다"라고 진술하였다.⁷⁾

그리고 당시 옥스포드 연구 회의(The Oxford Study Conference)에서도 John Marsh (Oxford)와 W. Eichedt (Basel)에 의하여 연구된 논문들에 기초하여 구약에 대해서는 서로가 매우 밀접한 일치점을 발견하였다.⁸⁾

1954년 Evanston에서 모인 WCC 제2차 대회서 John A. Mackay가 한 말에서도 우리는 초기 WCC의 성경관을 알 수 있다. 그는 '세계의 소망, 그리스도'(Christ the Hope of the World)라는 주제에 대한 보고서에서 '신학은 성경적으로 기초되어야(biblically founded) 하며, 에큐메니칼한 단일화(ecumenically unifying)를 이루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⁹⁾

그리고 Walter Freytag도 Evanston 회의의 보고서는 일찌기 어떤 에큐메니칼 세계 회합에서 주어진 것보다 가장 '성경적 증거'(biblical testimony)를 많이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¹⁰⁾ 이와같이 WCC는 성경을 보다 깊게 통찰하였으며, 이것이 모든 분야에서 신학적으로 보다 분명한 견해를 갖도록 하고, 교회들로 하여금 그들의 공

7) *Ibid.*, p. 222.

cf. "Guiding Princip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Ecumenical Review*, II, No. 1 Autumn, 1949, p. 81.

8) *Ibid.*

9) Paul G. Schrotenboer, "The Bible in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Calvin theological Journal*, Vol. 12, No. 2, 1977, p. 146.

10) Harold E. Fey(ed.), *op. cit.*, p. 7, cf. *Ecumenical Review*, Vol. VII, October, 1954, p. 12.

통적인 신념을 발견토록 하였다. 그리고 혹 기본 원리(The Basis)에 대하여 상반된 의견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초기의 불확실한 시대에 있어서는 David P. Gaines의 표현대로 새로운 어떤 기초를 다시 제안하기보다는 '상관치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leave well enough alone)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졌다.

Suzanne de Diétrich도 성경 해석의 논쟁적 주제들과 불일치의 요인이 되는 성경의 주제는 차라리 피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Suzanne de Diétrich는 "신학자들은 성경에 함께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리고 그들의 차이점을 헤치고 나아가며 가로지르고 넘어서 그들을 연합시키는 좋은 가능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야만 한다"고 믿었다.¹¹⁾

2. 성경 신학적 접근

성경이 교회 연합 운동의 참된 근거를 제공한다는 이러한 통찰은 점차적으로 WCC 총회를 포함하여 여러 에큐메니칼 회합들 내에서 성경 연구에 대한 강조를 가져오게 하였다.¹²⁾ 그리하여 이것은 WCC 기본 원리 속에 '성경에 따라서'(according to the Scriptures)란 단어를 추가하기까지 이르렀다. 1948년 Amsterdam에서 WCC가 창설되었을 때, 처음으로 채택된 회원 자격에 관한 기본 원리(The Basis)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주로 숭복하는 교회들의 단체'였다.

그러나 1961년 New Delhi에서 모인 제3차 WCC 회의에서는 이

11) Arthur P. Johnston, *op. cit.*, p. 221.

12) Harold E. Fey (ed.), *op. cit.*, p. 7.

기본 원리가 수정되어 성경과 삼위 일체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게 되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과 구주로 고백하며 그리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들의 공동 소명을 함께 성취하기를 구하는 교회들의 단체'로 변경되었다.¹³⁾

물론 그들이 말하는 '성경에 따라서'(according to the Scriptures)는 WCC에 대한 보다 보수주의적인 면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정통 성경관의 입장에서 실제 세밀하게 검토해 볼 때, 그들의 성경관은 역사적 비평주의 입장에 근거한 것으로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으며, 또한 거기에는 명료성이 결여되어 있어 여러가지로 달리 해석되어질 수 있는 모호한 기본 원리임을 알 수 있다.¹⁴⁾ 다시 말하자면 성경의 권위와 우리 주님의 동정녀 탄생과 그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극단의 자유주의자들로부터, 다른 한편으로는 성자들과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미신적인 숭배와 연옥 교리를 주장하는 희랍 정교회 (Orthodox Churches)에 이르기까지의 넓은 신앙의 범위를 내포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위의 그러한 기본 원리 (The Basis)는 종교 개혁의 'Sola Scriptura'나, 우리 주님과 사도들에 의해 주장된 교회의 인식과는 여전히 거리가 먼 것이었다.¹⁵⁾ 그러나 좌우간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처럼 New Delhi에서 '성경에 따라서' (according to the Scriptures)란 단어들을 추가하게 된 것은 성경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발전에 실제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그 위치에 대한 그들의 강조와 인정

13) T. H. Bendor-Samuel, *New Delhi and After, an Examination of development in the Ecumenical Movement*, British Evangelical Council (Pamphlet), p. 6, cf. Richard C. Rowe, *Bible Study in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Research Pamphlet, No. 16 (Geneva: WCC, 1969), pp. 24-25.

14) T. H. Bendor-Samuel, *Ibid.*

15) Hermann Sasse, "Facing New Delhi" *Christianity Today*, Vol. V, No. 14, 1961, p. 579.

이었다.

New Delhi에서 당시 WCC 총회 서기였던 William Visser't Hooft는 성경은 WCC의 행진 명령을 준 소리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New Delhi 문서들은 반복하여 '화합'(reconciliation), '봉사'(service)와 같은 주제들에 대한 '성경적 이해'(biblical understanding)를 언급하게 되었으며, Flessemen Van Leer가 말한 대로 '당시의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성경적 메시지와 성경의 개념에 관하여 말하였다.'¹⁶⁾

Hans-Ruedi Weber는 "당시의 이러한 성경 신학 운동은 성경에 관한 비평적 접근과 구원 역사에 대한 성경의 증거와 결합된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¹⁷⁾ 이처럼 성경에 대한 비평적 접근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성경의 단일성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 신학 지지자들에 의하여 생각되어졌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New Delhi의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New Delhi는 집중적인 토론과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많은 에큐메니칼 사역의 다양성을 세 가지 문제로 요약하였다. 즉 증거(Witness), 봉사(Service), 그리고 통일성(Unity)이었다.¹⁸⁾ 그 중에 '증거'(Witness)에 대한 New Delhi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당시 성경 신학의 분명한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증거에 관한 그 보고서에 "하나님은 곧 자기 자신의 증거이시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기 자

16) Paul G. Schrottenboer, *op. cit.*, p. 145. cf. David P. Gaines,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Peterborough, NH: Richard R. Smith Co., 1964), p. 882.

17) Hans-Ruedi Weber, "The Bible in Today's Ecumenical Movement," *The Ecumenical Review*, Vol. XXIII, No. 4, 1971, p. 341. 당시 성경 신학 운동을 가장 잘 표현한 WCC 문서는 "Guiding Princip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by Wadham College)이다.

18) Harold E. Fey(ed.), *op. cit.*, p. 42.

신의 메시지를 스스로 인간에게 확증하심으로 일해 오셨으며, 그리고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증거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은 세계의 창조와 보존에 있어서 특히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세상의 구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사 속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전 행위에 대한 증거를 의미한다. 이러한 증거에 대하여 교회 안에서 성령은 증거하신다”¹⁹⁾고 하였으며, 또한 동일한 보고서에서 연이어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사도적 증거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후속 증거들의 기초를 우리에게 제공하신다”고 하였다.²⁰⁾

그리고 ‘통일성’(Unity)에 대한 New Delhi의 보고서에서도 “신구약 성경은 사도적 신앙에 대하여 증거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불러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사건들을 말한다. 복음의 중심(Kerygma)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 즉 그의 생애와 교훈, 그의 죽으심과 부활, 임재, 그리고 그가 모든 인간들에게 제공하시는 칭의와 성화를 가리킨다”고 하였다.²¹⁾

이처럼 성경 신학은 이스라엘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들 속에 나타난 구약 역사에 큰 강조점을 주었으며, 성경은 그 구원 역사(Heilsgeschichte)에 대한 충실한 증거로 보여졌다. 그리고 그 구원 역사의 핵심과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었으며 자연히 성경 신학은 극히 그리스도 중심적(Christo-Centric)으로 되었다. 이리하여 당시 WCC의 연합을 구하는 가장 깊은 동기도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다는 성경적 개념에 기초하였던 것이다.²²⁾ 또한 당시 성경 신학자들은 성경이 모든 시대의 인간들

19) Paul G. Schrottenboer, *op. cit.*, p. 149.
cf. *The New Delhi Report*(New York: Association Press, 1962), p. 79.

20) *Ibid.*

21) *The New Delhi Report*(New York: Association Press, 1962), p. 120.

22) Harold E. Fey (ed.), *op. cit.*, p. 6.

을 동시대인들로서 나타내고 있으며 동시에 구약은 신약의 관점에서 읽혀져야만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W. A. Visser't Hooft의 말처럼 당시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러한 공통적인 성경 신학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즉 등뼈를 상실하는 격이 되었다.²³⁾

Edmund Schlink도 당시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위한 성경의 통일적이며 규범적인 그 힘에 대하여, 특히 그 성경에 기초하지 않으면 모든 교회는 분리되고 말 것임을 다음과같이 강조하였다.

“만약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규범이 신중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고백서들을 통하여 교회에 대해 연구하며, 우리 스스로 자문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에 대한 불순종과 교회의 분리로 끝을 맺고야 말 것이다.”²⁴⁾

‘우리의 모든 연구는 성경과 함께 시작한다’는 Visser't Hooft의 말처럼 WCC 내에 있었던 ‘오늘 세계에 대한 성경과 교회의 메시지’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의 다른 연구, 즉 전도와 기독교신자의 행위에 대한 연구를 위해 ‘건전한 성경적 토대’를 공급하도록 이루어졌다.²⁵⁾

이처럼 WCC는 성경적 토대 위에 세계 교회의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며, 이러한 성경 신학적 접근은 1961년 New Delhi를 통해, 그리고 New Delhi에 이르기까지의 에큐메니칼 신학의 일관된 형식이었다.

그러나 그 후 10년이 지나 1971년 Louvain에서 모인 ‘신앙과 직제’

23) *Ibid.*

24) Edmund Schlink, “The Church and the Churches” *the Ecumenical Review*, I (1948~49), pp. 156~157.

25) Paul G. Schrottenboer, *op. cit.*, p. 149. cf. David P. Gaines,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Peterborough, NH: Richard R. Smith Co., 1964), p. 437.

(Faith and Order)의 '성경의 권위'에 대한 보고서에는 이전의 New Delhi와는 전혀 다른 견해를 표명하였다. 즉 "우리는 성경을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 우리가 일치를 이루어야만하는 하나의 표준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²⁶⁾ 이것은 분명히 10년 사이에 일어난 WCC의 성경관에 대한 깊은 변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는 1963년 Montreal에서 모인 신앙과 직제 회의를 기점으로 하여 발단되었다.

3. 새로운 방향

1963년 Montreal에서 모인 신앙과 직제 위원회에서 행한 Ernst Käsemann의 연설은 WCC 성경관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Käsemann은 그 연설문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구원 역사가서 꾸며진 그 어떠한 가공적인 가정도 역사가는 오직 신약 교회론의 완전한 단일성에 대하여서는 말할 수 없다는 그 엄연한 사실을 결코 상대화시킬 수 없다."²⁷⁾ 다시 말하자면, 신약 교회의 완전한 단일성은 부정되어져야 하며, 그 다양성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Käsemann의 주장처럼 만약 정경 속에 서로 조화될 수 없는 다양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면, New Delhi에서 채택된 '성경

26) *Faith and Order, Louvain 1971* (Geneva: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1971), p. 21.

cf. Paul G. Schrottenboer, *op. cit.*, p. 146.

"The Authority of the Bible" *The Ecumenical Review*, 1971, p. 435.

27) Paul G. Schrottenboer, *op. cit.*, p. 150.

cf. Flesseman Van Leer, "Biblical Interpretation in WCC" *Study Encounter*, Vol. VIII, No. 2, 1972, p. 3.

에 따라서'(according to Scriptures)라는 단어는 에큐메니칼 단일화를 위해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합의 확실한 기초로 주장되어 온 성경적 토대가 무너질 때, 사실상 에큐메니칼 운동과 WCC는 붕괴되고 말 위기에 직면하는 것이다.

신약 성경의 신학적 복수주의(pluralism)에 대한 Käsemann의 주장에 호응하여 Gerhard Von Rad 같은 이들은 구약 성경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주장을 내세웠다. 즉 교회론에서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교훈들에서도 그 다양성이 주장되어진 것이다.²⁸⁾ 이렇게 되자 WCC 형성에 이처럼 강한 역할을 했던 '성경 신학'이 Montreal에서는 오히려 교회 분리의 위기를 조장하는 거침돌로 보여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특히 New Delhi 이후 초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하여 완고한 견해를 가진 회람 정교회가 WCC에 가입하자, 자연히 신학자들과 교회들 사이에 성경의 의미에 대하여 깊은 견해 차이가 점점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점차 성경이 교회를 연합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사이에 쐐기를 쳐서 박는 것처럼 보이는 막다른 난국에 도달하게 되었다.²⁹⁾

이제 WCC는 성경 신학적 접근의 유용성과 그 정당성에 대하여 회의의 품게 되었으며, 교회 연합을 유지하기 위한 성경 이해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WCC로 하여금 이처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한 것은 Montreal에서의 Käsemann에 의한 신약 성경의 신학적 다양성에 대한 주장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있다.

특히 성경 신학적 접근 그 자체 속에 원래부터 있어 왔던 한 요인은 성경에 대한 역사적, 비평적 접근 방법에 대한 인정이다.³⁰⁾ 즉 신학자

28) *Ibid.*

29) *Ibid.*, p. 146.

들은 성경 본문에 대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고등 비평과 양식 비평의 도구로 그 본문 속의 한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자연히 그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는 각 개인의 주관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양성을 띠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WCC가 성경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성경적 복수주의 (biblical pluralism)에로의 방향 전환을 가속화시킨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Wadham(1949)과 Lund(1952)에 모인 신앙과 직제 회의가 가졌던 에큐메니칼적인 '경험'(experience)에 있다.³⁰⁾

1949년 Wadham에서 모인 회의에서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한 막다른 골목(cul de sac)이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는 다만 서로가 얼마나 크게 분리되어 있는가를 발견하였을 뿐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참석한 관계자들이 구약 성경 그 자체를 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상호 협력적인 탐구와 예배의 정신으로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 분위기는 즉각적으로 변하여 '그때 그 분리들은 거의 사라져 존재하지 않는 듯한' 에큐메니칼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³¹⁾ 이러한 경험은 Uppsala(1968) 이후 WCC의 공식적인 '성경 연구의 본질'의 한 부분을 이루었다. Richard C. Rowe가 작성한 'WCC의 성경에 대한 기본적 태도'(Basic Attitudes toward the Bible in WCC)에서 "공동 성경 연구는 단순히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는 토론만이 아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진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상호 협력적인 탐구이다. 그러므로 모든 순수한 성경 연구에는

30) Arthur P. Johnston, *op. cit.*, pp. 255~256.
cf. Richard C. Rowe, *op. cit.*, pp. 62~73.

31) Paul G. Schrotenboer, *op. cit.*, p. 151.

32) *Ibid.*

기도와 찬양이 앞서야만 한다"고 하였다.³²⁾

1952년 Lund에서 모인 신앙과 직제 회의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이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이미 어떤 교리적, 성례적 그리고 행정적인 형식들이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다. 즉 성경 신학을 포함한 교의 신학적 접근에 있어서 심각한 대립과 분리에 처하였다.³³⁾

이처럼 대표자들이 서로의 교리적 차이점들에 관하여 이야기함으로써 연합(unity)을 향한 더 이상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을 때, 그들도 서로 성경을 함께 읽는 것이 하나의 탈출구가 됨을 발견하였던 것이다.³⁴⁾ 그래서 당시 Lund 회의는 '교회들을 위한 하나의 말씀'(A Word to the Churches)에서 "만약 우리가 다만 교리의 본질과 구체화된 전통들에 대한 우리의 몇 가지 개념들을 비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연합을 향한 아무런 실제적 진전도 가져올 수 없음을 분명히 보아 왔다"³⁵⁾고 말하면서 교회의 행동적인 실제들(actual practices)보다는 예배의 경험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에큐메니칼한 일치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³⁶⁾

이러한 Wadham과 Lund의 '경험들'(experiences)은 성경 신학과 교의 신학적 접근에서 이를 수 없었던 것을 '에큐메니칼한 경험'(ecumenical experiences)이 성취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³⁷⁾ 그리

33) Richard C. Rowe, *op. cit.*, pp. 62~73.

cf. Arthur P. Johnston, *op. cit.*, pp. 282~284.

34) Harold E. Fey(ed.), *op. cit.*, p. 147.

35) David P. Gaines, *op. cit.*, p. 73.

36) Harold E. Fey(ed.), *op. cit.*, p. 151.

cf. *The Third World Conference on Faith and Order*, ed. Oliver S. Tomkins(London, S. C. M. Press, 1963), p. 15.

37) *Ibid.*, p. 430.

38) Paul G. Schrotenboer, *op. cit.*, p. 151.

하여 이 경험은 Montreal 회의에서의 성경 신학적 접근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약하게 하였으며, 연합을 위한 WCC의 성경 이해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게 한 깊고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영향은 마침내 WCC로 하여금 연합의 근거를 교회의 전통들에서도 구하게 하였다.

교회 전통(tradition)에 관한 문제는 이미 1937년 Edinburgh의 신앙과 직제 회의가 전통을 '교회 생활의 살아 있는 줄기'라고 정의함으로써 그 토론의 전망을 열었다. 그 후 1952년 Lund에서의 신앙과 직제 회의와 1953년의 실행 위원회(The Working Committee of the Commission)와 1963년 신앙과 직제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연구하였으며, 특히 용어 사용에 있어 그들의 최종 보고서는 서로가 상당한 일치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여기서의 가벼운 차이점은 바로 1963년 몬트리올(Montreal) 회의에서 해결되어졌다.³⁹⁾

이에 대한 Montreal 회의의 최종 보고서에서는 "전통이 대대로 계속해서 교회에 의하여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전달되어지는 복음 그 자체를 의미한다면, 그리스도 자신은 그 교회의 생활 속에 나타나신다. 전통이 전통적인 과정을 의미한다면, 전통들(traditions)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진다. 즉 표현 양식의 다양성과 또한 우리가 신앙 고백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예를 들면 루터 교회의 전통 또는 개혁신의 전통과 같은) 그들 모두를 가리킨다"고 하였다.⁴⁰⁾

이처럼 Montreal 회의는 성경을 교회의 가르침과 직접 관련시켰으며, 오히려 교회의 전통(tradition)에 보다 더 큰 강조를 두었다.⁴¹⁾ 그

39) Harold E. Fey (ed.), *op. cit.*, pp. 159~161.

40) *Ibid.*, p.160.

41) Paul G. Schrottenboer, *op. cit.*, p. 151.

리고 Montreal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며 그리고 성경이 주관적 또는 독단적인 주석학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적절한 성경 해석에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하여 성경에 대한 교회의 해석학적 문제를 제시하였다.⁴²⁾ 그리하여 오직 복음 선포(kerygma)의 전통(padadosis), 즉 인간적 사고와 해석을 통해서만 이 기독교신자들은 하나님의 구속 행위에 접근할 수 있음이 인정되어졌다.⁴³⁾

1966년 Dallas에서 모인 COCU(Consultation On Church Union)에서 '전통'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신약 성경은 기독교 전통에 상반되거나 분리된 것으로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통의 표현으로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성경은 그 자체가 전통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⁴⁴⁾

이리하여 성경은 전통의 기록된 형식이며, 늘 새로운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교회에 의하여 해석되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여러가지 전통들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성경이 올바르게 해석되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서로가 일치할 수 있는 공통적인 올바른 해석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WCC는 공통적인 '해석학적 원리'에 의하여 올바른 해석이 무엇인가를 결정함으로써 모든 교회의 연합의 근거를 새롭게 제시하고자 하는 한 탐구를 시작하였다.

42) *Ibid.*, p. 152.

43) *Ibid.*

cf.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Faith and Order*, eds. Rodgen, P. C. and Lukas Vischer(New York: Association Press, 1964), p. 54.

44) *Consultation on Church Union 1967* (Forward Movement Publication, 1967), p. 30.

4. 성경 해석학적 접근

Montreal에서 시작된 그 새로운 방향 모색이 1967년 Bristol 신앙과 직제 회의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나게 되었다. 이 회의 보고서인 '에큐메니칼 운동을 위한 해석학적 문제의 중요성'에서 "성경을 더 이상 하나의 단일체(unity)로서 간주할 수 있느냐?"라는 회의적인 질문이 제기되었다.⁴⁵⁾ 그리하여 Bristol은 성경을 인간들에 의하여 기록된 다양한 문서들의 수집으로 보았으며 정경서들 그 자체 내에 이미 여러가지 해석의 다양성과 신앙 고백적인 분열이 내포되어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후 자연히 성경 자체의 다양성에 대한 강조가 주어지게 되었다.

해석학적 문제에 대한 Bristol 연구의 계속으로서 1971년 Louvain의 신앙과 직제 회의에 제출된 '성경의 권위'(The Authority of the Bible)에 대한 연구 개요에서도 James Baar는 성경 자체 내에 있는 근본적인 신학적 불일치의 가능성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⁴⁶⁾ 다시 말하

45) Paul G. Schrottenboer, *op. cit.*, p. 153.

cf. Harold E. Fey(ed.), *op. cit.*, p. 161. "에큐메니칼 운동을 위한 해석학적 문제의 중요성"(The Significance of the Hermeneutical Problem for the E. M.)에 대한 검토는 WCC의 연구 분과 위원회 (the Division of Studies)의 긴밀한 협력에 의해 1964년에 시작되어, 그 중간 보고서가 1964년 위원회 (Commission)에 제출되어졌다. 그리고 그 최종 보고서가 1967년 Bristol 회의에 제출되어져 받아들여진 것이다. 여기에 문학적, 역사적, 해석 방법들의 사용과 일반적 해석의 진전에 있어 상당한 일치가 이루어졌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46) James Baar, "The Authority of the Bible-A Study Outline" *The Ecumenical Review*, Vol. 21, No. 2, 1969, p. 135. /*New Directions in Faith and Order-Bristol 1967* (Geneva: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1967), p. 135. 이 연구 개요서는 1968년 Zurich 근처의 Boldem에서 모인 신앙과 직제 회의에 의해 정리되었던 그 협의 내용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1967년 Bristol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위한 해석학적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의 계속으로 주어졌던 것이다. Louvain은 성경의 다양성에 대해 Bristol보다 더 명확한

자면 성경은 이미 노골화된 그 다양성으로 인하여 에큐메니칼 운동을 위한 유일무이한 단일화의 요소로서 더 이상 생각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James Baar는 그 연구 개요서의 결론으로서 "이제 WCC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공동의 수락을 통하여 연합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그는 동시에 그 성경적 권위의 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그는 "성경적 권위에 대한 연구를 주석학적 입장에서부터 추출되어진 성경적 권위에 대한 일반적 고찰에 의하여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된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특유한 성경 구절들의 해석에 의하여 접근해야만 한다"고 하였다.⁴⁷⁾

이처럼 WCC의 교회 연합을 위한 성경에 대한 태도는 성경 신학적 접근에서 떠나 성경에 대한 해석학적인 연구를 계속하게 하였다. 1967년 Bristol 신앙과 직제 회의에 의해 위탁되어진 '성경의 권위'에 대한 그 최종 보고서가 1971년 Louvain 신앙과 직제 회의에 제출되어졌는데, 그 보고서는 성경 권위의 개념과 성경 해석의 다양성의 문제를 길게 다루었다.⁴⁸⁾

여기서 해석학적 연구를 특별히 성경 권위의 문제와 관련시켜 생각한 것은 해석학적 진전 과정이 각 개인 해석자의 성경 권위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었다.⁴⁹⁾

입장을 취하였는데 즉 "성경의 각 구절들과 전통들이 모두 특별한 역사적 상황에서 연합되어져 있으며,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다양한 증거들의 수집이다"고 하였다. (Faith and Order Louvain, 1971, p. 11)

47) James Baar, *op. cit.*, p. 138.

48) "The Authority of the Bible" *The Ecumenical Review*, 1971, pp. 419~437. 이것은 James Baar가 처음으로 기초한 "The Authority of the Bible-A Study Outline"를 다시 여러 나라의 10 그룹의 연구진을 통해 재검토한 후 Geneva 근처 Cartigny에서 최종 확정된 보고서이다.

49) *Ibid.*, p. 424.

그들은 성경에 보도된 모든 사건들이 성경 저자들에 의해 항상 해석의 옷을 입을 때만 우리에게 영향력 있게 접근해 올 수 있음으로 성경은 하나의 사건인 동시에 해석이라고 하였다. 즉 성경의 권위는 실제 그 성경이 보도하는 그 사건들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성경 저자들의 다양한 해석들 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다.⁵⁰⁾

그리고 그 성경 내에 다양한 해석들을 평가하는 표준은 “한 해석이 어느 정도까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핵심적인 구원 사건을 해석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구원 사건 안에 뿌리박고 있느냐”에 있다고 하였다.⁵¹⁾

또한 이 최종 보고서는 그 핵심적인 구원 사건에 밀접하게 관련된 한 새로운 요소인 성경의 ‘상관적인 핵심들’(Beziehungsmittelpunkt; relational center)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즉 성경적 진술들은 어떤 내적 관계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많은 내적 관계들은 핵심적인 구원 사실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모든 진술들은 그 원초적인 진술들로부터 (결과로써 또는 충분한 설명으로써) 파생되어진 것들이라고 하였다. 바로 이러한 결정적인 핵심들을 명시하기 위해 ‘상관적인 핵심들’이라는 용어를 만든 것이다. 그 예를 든다면, 곧 다음에 연이어 영생에 관한 진술들이 논리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 상관적인 핵심들로서 간주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관적인 핵심들은 독립적인 것으로서 서로 보충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 없으며, 동시에 다른 것을 배제하지 않는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오늘날 무조건적으로 어떤 해석들을 그대로 채택한다는 것은 종종 불가능하다고 하였다.⁵²⁾

50) *Ibid.*, p. 428.

51) *Ibid.*, p. 430.

cf. *Faith and Order*, Louvain 1971, pp. 16~17.

52) *Ibid.*, p. 430~431.

그후 Louvain은 James Baar의 제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능적인 면에서의 성경 권위 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올바른 해석학적 접근의 길을 열며, 그리고 그 타당성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Louvain 회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하였다. “성경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권위있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 접근해야만 하는가?”⁵³⁾

이 질문 자체 속에는 성경이 권위있게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사실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 Louvain은 이것을 성경은 그 어떤 외적 근거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성경은 그 메시지의 영향에 의하여 그 자체의 권위를 입증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즉 성경은 그 자체가 권위적인 것이 되기 위하여 권위를 가진 것으로 경험되어야만 하며, 인간의 경험 속에서 우리 생활에 대하여 힘을 소유한 것으로 이야기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특히 Flesseman Van Leer는 성경이 자기 생에 있어서 권위있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에 앞서, 성경은 단순히 그 성경 자체가 권위를 주장하기 때문에 권위적인 것이라고 확정하는 소위 ‘선협적’(a priori)인 복음주의의 견해를 맹렬히 공격하였다.

권위는 결코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Flesseman Van Leer는 만약 성경적 증거들이 그 자체가 스스로 권위있는 것으로 입증되지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이 영감되었다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였다.⁵⁴⁾

53) *Faith and Order*, Louvain 1971, p. 9.

54) Flesseman Van Leer, *op. cit.*, p. 7.

또한 James Baar는 성경에 관해 우리가 관심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는 성경이 무엇을 하느냐에 있으며, 사실 오늘날 성경에 대한 대다수의 견해는 성경이 우선적으로 과거 역사 속에서 주어진 원초적인 계시에 대한 접근의 한 양식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였다.⁵⁵⁾

James Baar가 말하는 성경의 기능적 사용이라는 것은 선형적으로 이미 확정되어져야만 한다는 의미에서 문제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본문들이 오늘날 실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들로 그 본문들이 교회 생활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그 양식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일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⁵⁶⁾

이렇게 될 때 자연히 강조점은 성경 그 자체의 본문에보다도 성경의 문맥 또는 그 상황에 훨씬 더 많이 주어진다.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에 대한 그 경험이 발생하는 것은 성경 자체의 본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일들' 즉 현재의 문맥(context)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Philip Potter와 같은 이는 성경 본문이 말하는 그 자체에 호소하는 것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이 되었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다.⁵⁷⁾

55) Paul G. Schrottenboer, *op. cit.*, p. 156.

56) *Ibid.*

cf. Richard C. Rowe, *op. cit.*, pp. 65~66. 이 보고서의 제2장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에서 "기독교 신자는 어떤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성경의 권위에 흥미를 느끼지 않고 현재 그들이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성경의 구원에 관심을 둔다"고 하여 그들의 기능적인 성경 권위관을 분명히 표명하였다.

57) *Ibid.*

cf. Paul G. Schrottenboer, *op. cit.*, p. 160. Louvain의 한 위원회는 성경의 권위에 관한 그 보고서를 평가하면서 정적인 권위 개념과 영감에 대한 기계적인 이해도 표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기능적 그리고 비선형적인 성경 권위관과 주어진 상황의 제한을 받는 정황적 해석학 (Situational Hermeneutics)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⁵⁸⁾

'성경 권위'에 대한 최종 보고서에서도 "만약 현대 의식의 과정을 성경 속에서 인지되는 해석적 과정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성경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있어 어떤 주어진 시기의 그 상황에 상당한 중요성이 주어져야만 한다. 성경 기자들이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해 반응을 보였던 것과 똑같이 현대의 해석도 우리 자신의 상황에 의해 결정되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⁹⁾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인간 경험의 요소가 강조될 때, 자연히 그 경험이 발행하는 상황(context)에 대한 강조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의 제한을 받는 해석학적 관점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James Baar와 Flessemann Van Leer의 견해를 그대로 반영한 Louvain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그러므로 권위는 인간들이 그것을 권위로서 경험하며, 동시에 그것이 인간의 경험을 초월할 때만이 현재적 실제(present reality)가 된다"고 하였다.⁶⁰⁾

이제 WCC 성경 권위관에 있어 인간의 경험은 어떤 부속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가 되어진 것이다.⁶¹⁾ WCC 성경 권위관에 있어 성경과 경험은 서로 한 지붕을 떠받치는 서까래의 양

58) Flessemann Van Leer, *op. cit.*, p. 8.

cf. Ho Jin Jun, *A Critique of Ecumenical Mission and Its Influence on the Korean Church* (D. Miss. Thesis. Fuller Seminary), p. 317.

59) "The Authority of the Bible", *The Ecumenical Review*, 1971, p. 431.

60) *Faith and Order, Louvain 1971*, p. 14.

61) cf. Richard C. Rowe, *op. cit.*, pp. 62~65. "성경에 대한 학술적인 고찰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로 변화되는 즉 '강의'가 성경 연구에 의해 변화되는 그 '경험'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닐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WCC 내의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설명해 준다."

쪽과도같이 경험을 떠나 성경이 있을 수 없으며 성경을 떠난 경험도 있을 수 없다. 만약 어느 한 쪽이 상실되어지면, 그 지붕은 마침내 붕괴되고 만다는 것이다.⁶²⁾

그러나 사실상 현재 논쟁 속에 인간의 경험에 대한 성경의 초월성의 개념보다도 인간 경험의 개념이 훨씬 더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유의해 볼 때, WCC는 이미 성경을 한구석으로 제쳐 놓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Louvain은 성경의 해석과 교회의 성경에 대한 해석 사이에는 연속성(continuity)이 있음을 인정하였다.⁶³⁾ 즉 성경서들 자체에 주어진 근본적 규범적인 해석과 교회와 신학에 의한 보다 못한 편의 파생적 규범적인 해석 사이에는 아무런 구분을 지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WCC의 각종 대회와 연구 위원회에서 계속되는 실제적인 성경 연구의 경험이 곧 성경 자체의 해석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론(WCC의 성경 사용 결과와 비판)

WCC는 세계 교회 연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서 성경을 제시해왔다. 초기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성경의 단일성을 분리된 모든 세계 기독교 교회들을 하나로 연합하는 하나의 집결 지점으로서 강조하였다. 그리고 모든 신학은 성경적으로 기초하여 에큐메니칼한 단일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963년 Montreal 이후 성경 자체 내에 원래부터 불일치와

62) Paul G. Schrottenboer, *op. cit.*, p. 158.

63) *Faith and Order, Louvain 1971*, p. 21.

차이점들이 있음이 인정되어지고 그 다양성의 사실이 강조되어졌을 때, WCC는 성경 신학적 접근의 정당성에 대하여 회의를 품기 시작하였으며 분리된 성경은 분리된 교회를 가져오고야 말 것이라는 불안을 가지게 되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보다 교회 연합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그들은 성경에 따라 교회 연합에 대한 자기들의 견해를 수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성경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른바 성경 해석학적 접근을 성경의 권위 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시도하게 되었다.

1969년 James Baar가 관찰하기로는 옛날의 토론에서는 단일성이 신학적으로 적극적인 요인으로서 생각되어지고 다양성은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된 반면에, 최근에는 성경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가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폭넓은 인정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였다.⁶⁴⁾

그리고 WCC는 성경 자체의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오늘 교회들의 분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져다 주었으며, 하나의 동일한 복음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오히려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되자, 처음에는 교회 연합의 큰 장애물로 생각되었던 성경 내의 다양성이 이제는 하나의 큰 유익으로 입증되었다. 즉 성경 자체 내에서도 결코 조화될 수 없는 다양성과 신학적 차이점들이 있다는 사실은 오늘 현실 교회들 사이의 다양성과 신학적 차이점들을 정당화 해주기 때문에 이 사실은 오히려 교회 연합을 더 촉진시켜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 권위에 대한 연구 결과로 '경험'의 요소가 강조되자,

64) James Baar, *op. cit.*, p. 137.

성경이 권위있는 것으로 경험되어지는 성경 연구가 크게 장려되어졌다. 자연히 에큐메니칼 회의의 많은 연구 경험들을 중요시하게 되었으며 모든 교회는 그러한 경험들 안에서 성경 계시의 원초적인 증거에 접근하게 되며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경험을 서로 나누게 된다고 하였다.⁶⁵⁾

WCC의 이러한 경험에 대한 강조는 신정통주의 (Neo-Orthodoxy)의 부분 영감설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신정통주의는 계시를 그리스도와 만나는 하나의 경험으로서 강조하며 성경은 다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인간들을 대면하시는 통로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실제로 '다 해결된다'(gotten through)고 하기 전에 계시는 개개인들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하며, 성령에 의해 마음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경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⁶⁶⁾

이러한 영향으로 경험에 근거한 교회의 해석과 성경 자체의 해석 사이에는 연속성이 주장되어지고 WCC의 각종 회의와 연구 위원회의 실제적인 연구 경험이 오히려 성경에 대한 이해를 좌우하게 되었다. 1975년 Nairobi는 결정하기를 성경 학회들 (Bible Fellowship)과 성경 협회들 (Bible Societies)과의 연락을 진전시키는 것에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하며 그들의 성경 연구에 관한 서류첩에 보다 높은 우선권이 주어져야만 한다고 하였다.⁶⁷⁾ Nairobi는 성경을 다만 하나의 참고점으로만 취급하였을 뿐이었다.⁶⁸⁾

65) cf. Paul G. Schrottenboer, *op. cit.*, p. 159.

66) J. Barton Payne, *A Contemporary O. T. Studies* (현대적 구약 연구) (고려신학대학 출판부, 1979), p. 28.

67) *Ibid.*, p. 161.

cf. *Breaking Barriers, Nairobi 1975*, eds. Paton, David M. (London: SPCK;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6), p. 313.

68) 김명혁, "제5차 WCC 나이로비 총회의 동향" 『신학지남』, 제43권 제2집 제173호 1976. 6, p. 141.

그리고 성경 권위의 의미가 가장 잘 이해되어지는 길은 어떤 교회의 신앙과 소망에 대하여 설명하는 그 경험 속에 있다고 하여 WCC는 다른 교회 등과의 대화의 문을 넓게 열게 되었다. 이러한 출발은 WCC로 하여금 마침내 '대화의 신학'이란 이름으로 모든 종교와의 신학적 대화의 문을 열게 되었고 결국은 오늘날 기독교의 성경이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기독 신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신앙과 실제의 불변하는 핵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⁶⁹⁾

1971년 Louvain 신앙과 직제 회의에서 WCC가 성경을 사용한 그 결과를 다음과같이 요약하였다.

a) 우리는 성경을 우선적으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있어 우리가 일치해야만 하는 하나의 표준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을 위한 유일한 규범으로서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멀리 돌려 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해석은 어떤 주어진 상황의 요소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되어진다.

b)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성경은 읽혀져야 한다. 그 성경이 우리들의 세계와 삶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밝히 드러내어 줄 것을 기대하는 속에서 그 성경의 증거가 읽혀질 때만이, 모든 시대를 위한 성경 메시지의 결정적인 중요성은 올바르게 인식되어질 수 있다.

69) S. Wesley Ariarajah, "towards a Theology of Dialogue" *The Ecumenical Review*, Vol. 29, No. 1, January 1977, pp. 8~9. 이것은 1976. 6. Bossey에서 모인 The Ecumenical Institute에 제출된 논문으로 여기서 그는 심지어 힌두교 경전도 인도 기독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신앙적인 배경(Context)을 제공하는 'Scriptures'라고 주장하였다.

c) 성경은 하나님의 비평서이다. 성경을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행하는 사상에 적합하게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경은 교회의 사상과 교리와 결코 동일하지 않다. 성경은 교회가 계속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비평적인 호소의 범정이다.

d) 성경 기자들은 자신들의 시대의 도전에 응하여 행동하고 말하기를 구하였다. 고로 성경은 우리 시대에 부합한 논쟁들의 비평 속에서 읽혀질 때, 가장 효과적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떤 주어진 시대에 존재하는 그 상황의 도전에 노출되어야만 한다.⁷⁰⁾

여기서 보는 바대로, 그들은 이미 성경을 모든 시대를 포함하는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과 생활에 대한 유일하고 정확 무오한 규범으로서 인정하지 않으며 성경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그리고 본문(text)보다 상황(context)에 더 많은 강조를 둠으로 주어진 그 시대의 상황에 의하여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들은 1972년 '오늘의 구원'(Salvation Today)이라는 주제로 모였던 Bangkok 회의가 구원의 본질과 범위에 관한 중요한 성경적 진리를 제시하는 것보다 사회적 정치적 상황과 구원에 대한 여러가지 인간적 경험들의 대조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 보인 것에서 매우 분명하게 나타났다.⁷¹⁾

그러하여 그들은 구원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성경적 신학적이라기보다 사회적 정치적인 관점에 치중하여 다름으로, 이른바 해방의 신학을 주장하기에까지 이르렀다.⁷²⁾

이러한 모든 WCC 성경 사용의 결과는 근본적으로 그들의 성경에

대한 잘못된 접근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WCC는 처음부터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역사적 비평적 선입관(historical-critical bias)에서 시작하였다.⁷³⁾

이러한 관점에서 보여지는 그 성경은 이미 권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학적인 고등 비평과 양식 비평을 요하는 오류를 가진 '다른 많은 문서들을 내포한 하나의 문고'일 뿐이다.⁷⁴⁾ 그리고 그러한 성경은 이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로서 보고 들었던, 그러한 무오하고 정확한 기록이 아니며, 그것은 이미 여러 기자들이 초자연적 지시와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복음의 내용에 관하여 말한 단 하나의 음성으로서의 성경도 아니다. 그들의 성경은 다만 서구의 과학적 진화론적 문화의 신학적 용어에 의하여 혼돈되어진 복잡한 성경일 뿐이다.⁷⁵⁾ 초기에 WCC가 성경에 대한 성경 신학적 접근을 통하여 교회 연합의 기초를 발견하려던 노력이 실패한 그 근본 이유도 바로 이 역사적 비평적 선입관에서 성경을 보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WCC가 어떤 성경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성경 해석자들을 최고의 재판석에 앉게 하는 이 역사적 비평주의를 너그럽게 용납하는 한, 그들은 언제나 분리된 성경과 분리된 교회를 가질 뿐이요, 교회 내에 치명적인 분리의 세력을 항상 용납하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⁷⁶⁾

오늘날 모든 세계 교회들이 WCC의 성경 없는 혼합주의적 신학 노선을 떠나 종교 개혁의 '오직 성경(Sola scriptura)'사상에 기초한 개

70) "The Authority of the Bible" *The Ecumenical Review* 1971, pp. 435-437.

71) cf. Arthur P. Johnston, *op. cit.*, p. 257.

72) 전 호진, "에큐메니칼 운동과 선교론 비판" 『개혁신앙』 제4집 1978, 대한예수교 장로회신학교. pp. 102-104.

73) cf. Arthur P. Johnston, *op. cit.*, p. 255; Richard C. Rowe, *op. cit.*, p. 62.

74) Hans-Ruedi Weber, *op. cit.*, p. 335.

75) Arthur P. Johnston, *op. cit.*, pp. 255-256.

76) Paul G. Schrottenboer, *op. cit.*, p. 162.

혁주의 성경관으로 되돌아갈 때만이 완전하고 영속적인 세계 교회의 일치를 위한 진정한 길을 발견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Ariarajah, S. Wesley. "Towards a theology of Dialogue" *The Ecumenical Review*, Vol. 29, No. 1, 1977.
- Baar, James, "The Authority of the Bible-A Study Outline" *The Ecumenical Review*, Vol. 21, No. 2, 1969.
- Fey, Harold E (ed.). *The Ecumenical Advance: A History of the Ecumenical Movement*. London: SPCK, 1970.
- Leer, Flesseman Van. "Biblical Interpretation in WCC" *Study Encounter*, Vol. VIII, No. 2, 1972.
- Gaines, David P.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Peterborough, NH: Richard R. Smith CO., 1964.
- Hedegard, David. *Ecumenism and the Bible*. ICCB, 1954.
- Jun Ho Jin *A Critique of Ecumenical Mission and Its Influence on the Korean Church*. D. Miss. Thesis. Fuller Seminary, 1977.
- Johnston, Arthur P. *World Evangelism and the Word of God*. Bethany Fellowship, INC, 1974.
- Payne, J. Barton. *A Contemporary O. T. Studies*(현대적 구약 연구). 고려 신학대학 출판부, 1979.
- Rowe, Richard C. *Bible Study in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Research Pamphlet, No. 16. Geneva: WCC, 1969.
- Schrotenboer, Paul G. "The Bible in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Calvin Theological Journal*, Vol. 12, No. 2, 1977.
- Sasse, Hermann. "Facing New Delhi" *Christianity Today*, Vol. V, No. 14, 1961.

- Samuel, T. H. Bendor. *New Delhi and After*. An Examination of development in the Ecumenical Movement, British Evangelical Council (Pamphlet).
- Weber, Hans-Ruedi. "The Bible in todays Ecumenical Movement" *The Ecumenical Review*, Vol XIII, No. 4, 1971.
- _____ "The Authority of the Bible" *The Ecumenical Review*, 1971. pp. 435~437.
- _____ *Consultation on Church Union 1967*. Forward Movement Publishing Co., 1967.
- The New Delhi Report*.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62.
- Faith and Order*, Louvain 1971. Geneva: WCC, 1971, 1978.
- 전 호진. "에큐메니칼 운동과 선교론 비판" 「개혁신앙」 제4집.
- 간 하배. 「현대신학해설」 개혁주의 신서 ② 한국개혁주의 신행협회, 1974.
- 김 명혁. "제5차 WCC 나이로비 총회의 동향" 「신학지남」, 제43권 제2집 (제173호).